

“야생동물에 가장 큰 위협은 인간”

광주·전남 지난해 1700여마리 구조 건물 충돌·농약중독 등 450여마리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도 다수 발견

광주·전남에서 2023년 한해동안 170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됐다.

구조된 야생동물 대부분이 부모를 잃어 미아 상태거나 전산·건물과의 충돌, 농약 등에 의해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구조된 야생동물은 광주 613마리, 전남 1045마리다.

광주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2019년 249건, 2020년 481건, 2021년 577건, 2022년 75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전남 야생동물 구조 건수 역시 2019년 659건, 2020년 813건, 2021년 870건, 2022년 851건으로 올해 대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야생동물 구조·방사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 4188마리에서 2020년 1만 5397마리, 2021년 1만 7545마리, 2022년 2만 161마리, 2023년 2만 408마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의 35%가 치료를 통해 방사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300~300마리가 넘게 포함돼 있다.

광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된 동물은 총 84종으로 조류 71종(553건), 포유류 10종(57건), 파충류·양서류 3종(3건)이다.

이중 천연기념물은 솔부엉이(20건), 소쩍새



수리부엉이 <광주 야생동물구조센터 제공>

(9건), 황조롱이(20건), 원앙(5건), 큰소쩍새(3건), 쇠부엉이(1건)이며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은 수달(4건), 하늘다람쥐(1건), 수리부엉이(3건), 새매(5건), 팔색조(1건), 매(1건), 참매(3건)이다. 멸종위기종은 흰목물떼새 1건이었다. 구조원인별로는 미아가 266건으로 전체 43.4%를 차지했다. 건물 충돌이 184건(30%), 감염 27건(4.4%), 교통사고 25건(4.1%), 인가침입 22건(3.6%), 끈끈이 6건(1%), 기타 83건(13.5%)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투명창, 방음벽, 수로 등)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6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막기 위한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다.



수달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제공>

지난해 11월 6일에는 광산구 쌍암동의 아파트에서 밀화부리 등 야생조류 22마리가 아파트 방음벽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된 동물은 조류 832마리 포유류 197마리, 파충류 16마리다. 이중 천연기념물은 171마리, 멸종위기종은 100마리다.

전산·건물과의 충돌이 229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농약 등 중독사고가 228마리로 뒤이었다. 어미를 잃어 미아상태(156마리)거나 차량과의 충돌(103마리), 포식자 공격(56마리), 기타(52마리) 순이었다. 기생충에 감염(41마리)돼 있거나 인가침입(29마리), 가아 및 탈진 상태(19마리)인 경우도 있었다.

배성일 광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외상 없이 혼자 있는 어린 새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 발견시에는 먹이활동하고 있는 어미가 있는지 시간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가뭄·폭우피해 등 기후위기 일상화 우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빛원전 수명연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등 올 한해 환경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잇따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광주·전남의 환경분야 이슈를 모아 '2023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1차 투기를 시작했고, 3차까지 약 2만 3300t을 바다에 방류했다.

2월에 7800t을 더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투기 기간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광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본격 시작=영광핵발전소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25년과 2026년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핵 진흥 정책 발표 이후 수명연장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한빛 1·2호기는 가동 이래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기자회견과 광주광역시의회와 수명연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완화=환경부는 지난 2022년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대상과 지역을 축소하거나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해 더욱 퇴보적인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발표해 일회용품 규제정책은 유명무실해졌고, 그동안 규제를 준비해오던 현장은 혼란스럽게 됐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켰고, 착실히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준비해오던 소상공인들은 허망감이 가득하게 되었다. 일회용품 대체 물품을 생산해 오던 중소기업은 큰 피해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졌다.

이밖에도 환경단체는 ▲가뭄과 폭우피해, 광주, 전남 지역 기후위기 일상화 우려 ▲여수 산단 대체부지, 발암물질 덩어리로 전락 ▲목포 시내버스 중단, 시내버스 노선권을 시민의 품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낙석 무단 해양 유출사건 ▲시민참여 도시생물다양성 활동 활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변경 연산강 보 처리방안 폐기 ▲광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체 등을 지난해의 환경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초·중 드림스타트 아동에 남구, '새 책가방' 지원

광주시 남구는 갑진년 새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하는 남구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새 책가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자녀 가운데 내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책가방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8명과 중학교 입학생 29명이 대상이며 15만원 상당의 새 책가방이 지원된다. 책가방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로 배송되며, 지원 대상 학생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새 책가방을 받으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책가방에 담아 학업에 정진하도록 새 학기 선물을 마련했다”며 “희망 책가방과 함께 활기찬 출발에 나서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충장동 '청춘미용실' 운영...어르신 이미용 봉사



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충장동에서 '청춘미용실'이 문을 열었다. 청춘미용실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용 봉사는 연 6회 격월제로 진행 중으로 희망미용실전담 소속 위원 두 명(강숙희 미용실, 박순의 미하어포인트)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특히 이발 서비스 외에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돼 이야깃꼴을 피우며 친목의 장이 펼쳐지는 등 어르신 정서 안정 지원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어르신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 한 달 생활하기에도 빠듯한데 이발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빛원전 방사선환경평가 초안 폐기 촉구

시민단체, 중대사고 대응계획 미비 등 보완 요구 충족 못해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평가 초안(평가서)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2023년 9월 12일자 6면)며 수명연장 계획을 폐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영광 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는 영광군청 앞에서 지난해 12월 한달여간 진행한 1인 시위를 끝내고 2일 성명서를 통해 한빛 1·2호기 폐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지난해 1일부터 29일까지 기초지자체 6곳 중 4곳(영광·함평·고창·부안)에서 초안 주민 공람을 보류한 사실을 알리고 수명연장 반대 주민여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민공람을 요청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80여일이 지나도록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초안은 무효라며 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4개 지자체는 한수원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중대사고 대응계획’이 미비한 점, 2019년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 중인 상태에서 초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법인 점, 최신 기술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고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의 범주 하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초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작성된 초안을 폐기하고 초안 주민 공람을 강요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영광군도 끝까지 주민공람을 거부하고 한빛원전 1·2호기에 대한 안전한 폐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